현불논단

조계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칠정례 6번째엔 역대 선지식 예경
수많은 구법승 발걸음, 佛法을 전파
숭유억불 조선에선 민중들과 호흡해

현재도 각자 자리서 노력하는 스님들
그들이 있어 지금의 조계종이 존립해
과거부터 이어진 승가가 지금을 이뤄

낙엽 뒹구는 가을이다. 이런 가을 정취에 시를 읽어보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이다.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며칠 전, 승려교육기관에서 부처님께 예 올리는 예불문을 강의했다. 예불문 강의는 자주 하는 내용이 아닌지라 할 때마다 마음가짐이 다르다. 우리나라 예불문 의식은 통일되어 있다. 이 통일본은 1955년 최근에 열반하신 월운 스님께서 정리한 것이다. 당시 종파적으로 분분하게 행해지던 여러 의식을 통일해 우리나라 모든 사찰에서 일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예불문' 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에게만이 아닌 법보와 승보 등 삼보에 예경하는 칠정례(七頂禮)이다.

필자가 하고픈 얘기는 예불문의 6번째인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이다. 고대 인도(서역 포함)의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왔고, 중국의 승려들 또한 인도로 구법을 떠났다. 399년 법현 스님이 인도로 구법을 떠날 때, 사막길을 걸으며 이정표를 삼았던 것은 이전 구법승들의 해골이었다. 즉 법현 이전에도 수많은 승려들이 인도로 가다가 중간에 입적했고, 인도 구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최초의 승려가 법현이다.

우리나라 승려들인 경우, 〈왕오천축국전〉의 혜초가 있고, 중국으로 구법을 떠났던 수많은 승려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지금의 한국불교이다. 또한 조선시대 500년 동안 권력이 알아주지 않아도, 권력으로부터 위협받아도 야생화는 피고 지듯이 승려들은 들판에 핀 야생화처럼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묵묵히 꽃을 피웠다. 승려가 천민 대접 받고 나락으로 떨어진 속에서도 민중들과 더불어 면면히 한국의 불법(佛法)이 흘러왔다.

이제는 현재를 이야기해보자. 예전에 비해 스님들의 사회활동 폭이 넓어졌다. 수년전부터 불교 사회운동을 하시는 스님들이 뙤약볕에서 목탁 치고 맨바닥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민중들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불교계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은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또 올해 무더운 여름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 시위하는 스님들이 있었다. 한편 흠리스나 어려운 형편의 어른들에게 매일 점심을 대접하는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많이 있으며, 해외까지 나가 봉사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다. 고마운 분들이다.

또한 불교계 종단에서 일하는 스님들, 포교하는 스님들,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대중을 보필하며 여러 소임을 보는 스님들, 승가대학에서 강의하는 스님 등등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기에 현 우리나라 불교가 존립하고 있다고 본다.

조계종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또 어느 한 공간에서 구축된 것도 아니다. 과거 구법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이 계셨고, 현재 사찰에서 그리고 불교계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님들이 있기에 현 조계종이 존립한다.

들판에 여러 꽃이 만개하듯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수여 공간에서 서로 서로 꽃을 피운다.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승려들에 의해 조계종의 역사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미래도 가을날의 정취처럼 멋진 한국불교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며

바람이 분다. 가을빛을 실은 나뭇잎들이 폭설처럼 쏟아져 내린다. 헐거워진 나뭇가지 사이로 빛마저 부서져 흩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른 바람의 기척에도 나무는 서둘러 단풍잎을 떨쳐낸다. 단풍잎이 떨어진 바닥에는 손바닥 우주가 태어나고 있다.

〈벽암록〉 27장,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 스님에게 물었다.

"나뭇가지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樹凋葉落時如何)?"

"가을바람에 완전히 드러났느니라(體露金風)."

운문 스님은 무엇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대답했을까? 혹시, 누군가 욕심, 성냄, 어리석음 같은 오욕의 잎들이 다 떨어져 본체(本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할지 모른다. 본체를 탐진치(貪瞋癡)와 같은 나뭇잎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실체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말씀은 본체란 가을바람에 나무가 마르고, 잎이 부서지고 떨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본체란 따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여 드러나는 그 상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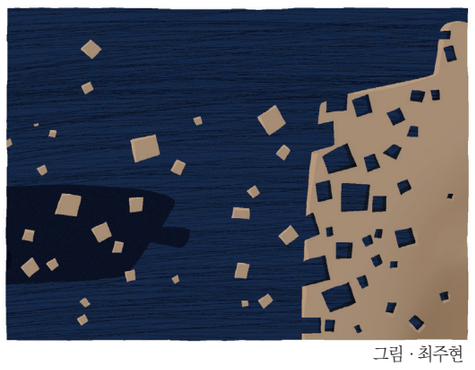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컫는다.

가을바람에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질 때 드러나는 본체는 무상(無常)이다. 나무에 물이 오르고 잎이 돋아날 때 드러나는 본체 역시 무상이다. 무상이란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풍에 지는 잎도 무상이요, 봄바람에 피는 꽃도 무상이다.

우리는 예쁜 꽃이 피어나는 봄철에는 무상함을 느끼지 않고, 무성한 잎이 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는 계절에 문득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 생성에서 소멸로 접어들 때 무상함에 눈을 돌리게 된다. 아름답고 패기 넘치는 젊은 시절이 영원하면 좋으련만 늙어 기력이 쇠잔해져 죽음이 가까워지면 삶이 허무하다고 한탄한다. 허무감이 인생무상을 안겨준다.

내가 마주하는 세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서 불변의 실체를 찾아 나선다. 세상이 덧없어, 변치 않는 영원성의 세계를 피안에서 찾는 것이 서양철학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랴.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만물은 시시때때로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 몸의 세포도 매일 매일 생멸하며 바뀌가고 있지 않은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나는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잎을 맞으며 가을 숲을 걷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 노랗게 물든 온 천지가 진여(眞如)이다.

〈작가〉

社 說

대학생 전법 성패에 불교 미래 달렸다

한국불교 최대 화두는 '대학생 전법' 이다. 지난 7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교구 · 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며 인력 인프라는 구축됐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 재원 마련이다.

실제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2000~3000만원 가량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가진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사비를 출연해 활동비를 보조하거나 어렵게 보시를 끌어오는 형태였다. 그러다보니 신실한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부재할 경우 불교 동아리의 명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대학생 불교 동아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은 앞으로 대학생 전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월결사가 오는 11월 11일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 를 개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목표로 내세운 매년 '1교구-1대학 불교 동아리 설립' 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는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고 또 완성"이라고 했다. 사실상 대학생 전법 불사의 성패가 곧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의미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 집중이 절실하다.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도들이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지금 전법의 기틀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한국불교 미래는 없다. 붕괴된 계층포교 부흥의 징검다리인 대학생 전법에 범불교계가 나서야 할 때이다.

태고종 변화 이끌 상진 스님 '公心' 행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10월 19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상진 스님의 100일 행보와 향후 계획들을 살필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6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 동안 보인 첫 행보는 '대외 소통' 이었다. 스님은 지방 종무원을 순시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경북도청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고, 오송궁평 지하차도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대외적인 자비나눔 행보도 이어갔으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성명 · 모로코 강진 애도문 · 건군 75주년 축하메시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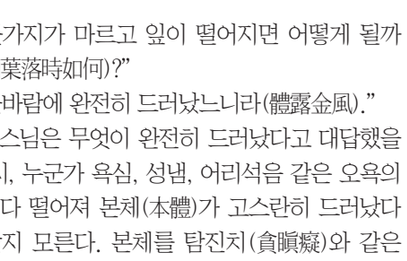
시간을 쪼개 동분서주한 이유는 상진 스님이 가진 공심(公心) 때문이다.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사심 없이 오직 공심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 한국불교 적자종단인 태고종단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태고종의 협력을 약속한 것도 종단의 위상을 강화해 종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간 100일 동안 대외적 소통 행보를 보였다면, 상진 스님이 계획하는 두 번째 행보는 태고종이 보유한 문화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태고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의 순천 선암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시대에 맞게 활용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게 상진 스님의 계획이다. 상진 스님의 공약 중 하나였던 '태고문화사업단(가칭)' 설립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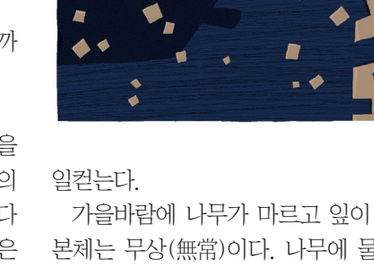
이밖에도 도제 양성, 전법 강화 등 상진 스님이 내놓은 청사진들은 많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차질없는 실천이다. 앞으로 상진 스님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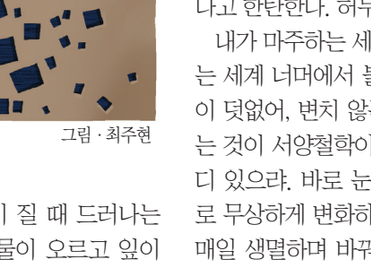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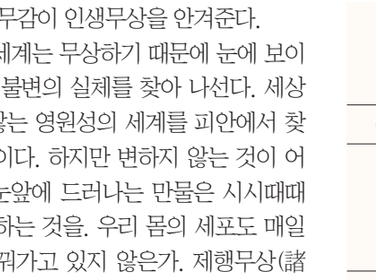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21:30 / 목 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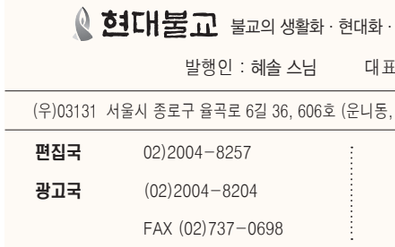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본방송 목 09:30
재방송 목 21:30 / 화 15: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본방송 월 09:30
재방송 월 21:30 / 화 23:25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죽음에서 배우는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최광식 교수가 알려주는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본방송 목 12:00
재방송 목 22:30 / 토 08:3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